

우리나라 精油産業의 座標와 進路

우리 나라에 精油工場이 최초로 건설된 것은 中日戰爭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35년 6월 日本人에 의해 설립된 朝鮮石油株式會社の 元山정유공장이 그 효시를 이루고 있다. 이 朝鮮石油은 주로 만주지역에 군사적 목적의 석유류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원유처리 능력은 연간 40만톤(하루 약 8천 배럴)의 소규모 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終戰 무렵 日帝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蔚山으로 그 시설의 일부를 이전하던 중,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그 가동이 중단되었다.

8·15 해방으로 美軍政의 관리를 받게 된 朝鮮石油은 1949년 韓美合同管理委員會가 조직되면서 시설을 보수하고, 결들여 확장공사도 하였으나 原油구입자금조달의 어려움등으로 가동을 못하고 말았다. 만약 이 때 그 공장이 정상가동을 했더라면 그 때의 국내 석유류수요량인 연간 33만톤의 약 60% 정도는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朝鮮石油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공장 건설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끝에 銀行起債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6·25동란이 발발하면서 그 공장은 유엔군의 油類補給廠으로 징발되어 정유공장 건설계획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해방 후 국내의 석유류 공급은 미군정청의 배급대행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오다가 1949년 1월에 대한석유저장회사(KOSCO)가 설립됨으로써 1964년 油公의 蔚山정유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국내 석유공급을 담당했다. 당시 국내 유류 소비량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6·25동란 이후 경제재건에 따른 수요증가와 원유가 아닌 값비싼 완제품의 도입 사용에 따른

外貨부담의 누증 등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경제자립을 위한 국내 정유공장 건설은 시급한 課題로 대두되게 되었다.

5·16혁명 직후 정부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石油에너지의 안정공급 없이는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精油工場 건설을 최우선사업으로 채택하고, 62년 1월閣議에서 大韓石油公社 설립을 의결했다. 설립 당시의 불입자본금은 불과 6억 2천 5백만원, 공장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外資와 기술은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 석유류수요는 주로 AID 원조자금으로 외국에서 제품을 사다 메꾸는 실정이었으므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있을 리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油公의 주식 일부를 외국 메이저에 넘기는 조건과 차관 제공을 전제로 外國合作先 교섭에 나섰다. 걸프를 비롯, 엑슨, 모빌 등 몇몇 美國系 메이저들이 일단 관심을 보였으나 움직임은 극히 소극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韓國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우방 美國의 투자자들 마저 對韓투자를 주저하던 시기였다.

후진국에 자본진출을 하는 경우 경영권을 쥔 정도가 아니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메이저의 생리다. 이들은 위험부담까지 고려, 우리 측이 받아 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제시했고, 차관 제공에도 인색했다. 그러던 중 걸프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다. 주식참여는 25%만 하고, 2천만 달러를 장기차관으로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25% 주식대금이 5백만 달러, 합쳐서 2천 5백만 달러였다. 외환보유고가 1백만 달러를 밑들 당시 이 돈은 실로 엄청난 액수였다.

게다가 「精油工場만은 우리 손으로」라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었던 당시 분위기에서 25% 만의 자본참여도 반가운 제의였다.

63년 11월 합작투자계약과 차관계약, 그리고 원유공급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기술 용역계약 등 8개의 기본협정이 체결됐다. 이 땅에 外國合作企業 제 1호가 탄생한 것이다.

걸프가 왜 이런 「덤핑上陸」의 모험을 결행했을까. 당시 용단을 내렸던 걸프의 화이트프로드會長은 후일 이렇게 술회했다.

『당시로서는 큰 모험이었지만, 韓國의 장래성에 주목했다. 경제개발이 계속되면 에너지 수요는 크게 늘 것이 필지의 사실이고... 또 당장 남아 도는 쿠웨이트産 原油의 판로확보에도 一助가 되리라고 믿었다.』

당시만 해도 국제원유시장은 공급과잉이었다. 엑슨과 셸, BP의 소위 「빅 스리」가 판을 치던 50년대 국제석유카르텔에서 後進走者 걸프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中東석유자원 쟁탈전에서조차 걸프는 뒷전으로 밀렸고, 32년 바레인 利權쟁탈전에서의 고배에 충격을 받은 걸프는 영겁결에 당시 未知의 불모지 쿠웨이트에 눈을 돌렸다. 이것이 노다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쿠웨이트의 매장량은 전세계 확인매장량의 6분의 1. 석유 위에 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英國의 BP와 어려운 흥정 끝에 결국 50대50으로 합작, 쿠웨이트 石油會社를 설립하고, 쿠웨이트産油량의 50%를 확보하게 됐다. 문제는 판매 시장이었고, 새로운 판로개척에 부심하고 있을 무렵, 韓國에서 합작오퍼가 날라든 것이다.

따라서 걸프의 韓國상륙은 이런 그들의 필요와 韓國의 필요가 서로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합

작물이었다. 63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는 엔지니어링회사 플라우어社(Flour CO.)와 정유공장 건설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공, 64년 4월 日産 3만 5천배럴의 蔚山 정유공장이 정상가동을 개시했다. 물새가 날고, 잡초가 우거진 蔚山 태화강변 바닷가에 韓國공업화의 개막을 알리는 불길기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나라 정유산업의 선두주자로 발족한 油公은 그 후 여러 차례의 증설을 거듭하여 현재는 하루 28만 배럴의 원유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日産규모 15만 배럴을 더 증설할 계획이다.

그 후 油公은 정부의 석유화학공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72년 10월 석유화학공업의 중간원료인 나프타分解工場을 준공, 우리 나라 석유 화학공업 발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湖南精油는 럭키그룹과 칼텍스 간에 67년 50대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 되었으며, 69년 6월 麗川공업단지에 하루 처리능력 6만 배럴의 정유공장을 세웠다. 64년에 가동한 油公은 同年에 8억원, 65년에 20억원의 이익을 올려 좋은 업적을 세웠다. 이는 한국경제발전의 先導業체로서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각 재벌그룹 간에 석유경제를 장악하는 자가 경제계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그래서 66년 5월 정부가 제 2 정유공장 신설계획을 발표하자 럭키, 韓國火藥, 롯데, 한양 등 6개 재벌그룹이 각각 칼텍스, 유니온 오일, 컨티넨탈·오일, 엑슨 등과 제휴하여 치열한 경쟁을 전개한 결과 럭키-칼텍스그룹이 추진하도록 낙착되어 湖油가 건설하게 되었다.

칼텍스의 韓國진출은 우리 나라 석유 산업의 독점자 걸프에 대한 견제로서 소비자보호와 원

精 油 施 設 推 移

(單位:千Bpsd)

會社別	年度	'64	'66	'67	'68	'69	'70	'71	'72	'74	'77	'78	'79	'80	비 고
油 公		35	35	55	115	115	115	115	175	215	215	280	280	280	80. 5月쌍용 정유 준공
湖 南		-	-	-	-	60	100	100	160	160	160	230	230	230	
京 仁		-	-	-	-	-	-	50	60	60	60	60	60	60	81. 5月호남정유 증설완공
極 東		-	5	5	5	5	5	5	5	5	10	10	10		
雙 龍		-	-	-	-	-	-	-	-	-	-	-	-	60	
計		35	40	60	120	180	220	270	400	440	440	580	580	640	

資料: 動力資源部

유도입선의 다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에 있어서는 걸프 루트에 대한 칼텍스 루트의 확보와 도입선산유국의 다변화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당시 정부의 전략은 정유산업에 있어서의 걸프의 독점체제를 칼텍스와 寡占体制로 바꾸면서 양자의 상호 견제 속에 한국측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결과 湖油의 경영권은 한국측이 장악하게 되었고, 칼텍스의 원유공급권은 무기한이지만, 74년부터는 소요 원유중 20%의 자주구입권을 갖는등 油公에 비해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 후 湖油는 증설을 계속, 70년에는 16만 배럴, 현재는 日産 23만 배럴까지 확대 되었으며 다시 오는 5월 15만 배럴의 증설이 끝날 경우, 총시설규모는 38만 배럴에 이르게 되어 국내 최대규모의 정유회사로 등장하게 된다. 이 규모는 칼텍스의계열의 日本 최대 정유회사인 日本石油製油의 根岸精油工場(33만 배럴)을 능가하는 규모이며, 칼텍스의 해외투자 정유공장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공장이 된다.

京仁에너지는 韓國火藥그룹과 美國의 독립계 석유자본인 유니온·오일이 50대 50씩 출자하여 68년에 설립되었으며 72년 4월 仁川에 하루 6만 배럴 처리 능력의 정유공장을 준공했다.

韓國火藥그룹은 제 2 정유공장건설을 둘러싼 경쟁에 참가하여 실패했으나 계속 제 3 정유 공장건설을 추진한 결과 仁川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을 목적으로 簡易 연료처리시설 신설인가를 얻어 京仁火力發電所를 설립했다. 이 때의 인가조건으로는 벵커C油 및 나프타만을 생산 판매하고 그 외는 수출한다는 부대조건이 붙여졌으나 발전소건설 도중에 京仁에너지로社名을 변경하고 70년 이 조건을 없애는데 성공하여 제 3 정유공장으로서 정제에서 수송, 판매까지를 담당하는 一貫會社가 되었다.

京仁에너지의 韓國측 出資者가 韓國火藥그룹인 것은 湖油의 경우와 같이 민간자본 육성을 위한 시책의 결과이며, 또 외국측 출자자가 유니

온·오일인 것도 기본적으로는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와 이미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메이저에 대한 견제로 풀이될 수도 있다.

京仁에너지가 본격적인 가동을 개시한 것은 제 3 차 5 개년계획의 초년도인 72년이었으나 同社의 정유공장건설추진이 제 2 차 5 개년 계획기간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새로운 사업 전개라고 하기 보다는 산업기반의 확충에 그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湖油와 京仁에너지와의 자본구성패턴에 기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당연하다.

極東石油은 65년 3월 英國系의 로얄·더치·셀과 합작으로 釜山에 日産 5천 배럴의 정유공장을 세웠다. 極東石油은 78년 시설확장으로 현재 하루 1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는 84년까지 6만 배럴을 증설, 총규모 7만 배럴로 확장할 계획이다.

제 5 정유인 雙龍精油는 76년 雙龍洋灰를 중심으로 한 雙龍그룹과 이란국영 석유회사 NIOC가 50대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80년 5월 溫山에 6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준공했다.

73년의 제 1 차 석유위기는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세계석유공급체제에 대한 산유국의 도전으로서 이를 계기로 산유국의 원유생산사업참가 가속화되면서 메이저의 원유공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각국은 산유국과의 직접거래에 의해 所要原油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우리 나라는 각 정유회사의 외국출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원유의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원유도입에 대한 불안을 느낀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고도경제성장 결과 杼韓투자에 어느 정도 체제와 조건이 정비되어 있음을 배경으로, 산유국과의 합작방식에 따른 정유공장건설계획에 돌입했다.

또 이 계획은 산유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利點이 있었다. 왜냐 하면 당시 원유가격의 상승이 선진제국의 國際收支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동시 景氣후퇴를 초래했고, 또 非産油

開途國에게도 국제수지적자의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韓國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만이 수출주도형의 경제운용체제를 취함으로써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고, 또한 원유가 인상으로 막대한 오일 달러를 얻은 산유국인 이란의 유망한 투자대상국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의 이란은 팔레비體制下에서 우리 나라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아랍제국의 石油禁輸國 내에 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제 4차 5개년계획의 주요프로젝트로 추진된 雙龍精油의 韓國민간자본과 NIOC와 의 결합은 기본적으로는 제 2, 3 정유공장 계획과 똑같이 국내 민간자본의 육성과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한국측의 자주권을 확립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메이저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원유공급능력의 상대적 저하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를 보면, 벵커C油 소비는 64년에 연간 9만 4천 배럴에 불과하던 것이 79년에는 9천 2백 31만 배럴로 9백82배의 엄청난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석유류 소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에서 49%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石油化學의 기초원료가 되는 나프타 소비도 64년에는 관련산업의 미 발달로 인해 거의 全無하던 것이 79년에는 1천 9백53만 배럴로서 전체 소비량중에서 10.5%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반면 重油의 경우 64년에 유류 전체 소비량의 51.2%를 차지하던 것이 79년에는 2%에 불과하여 석유류 제품의 소비패턴만으로도 그동안의 우리 나라 경제구조 및 규모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油類소비는 그 物量과 구성면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석유류제품에 대한 소비급증은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총에너지 소비구조에도 커다

국내 정유공장 현황

구 분 \ 社 別	油 公	湖 南	京 仁	雙 龍	極 東
시 설 능 력 (만Bbl/D)	28	38	6	6	1
가 동 년 도	1962	1969	1972	1980	1965
공 장 소 재 지	蔚 山	麗 川	仁 川	溫 山	釜 山
80 년 말 자 기 자 본	475억	200억	51억	165억	12억
기 타 사 업 내 용	석유화학 운 환 유	운 환 유	發 電	운 환 기 유	운 환 유
외 국 합 작 선	Gulf (1980철수)	Caltex	UNOCO	NIOC (1980철수)	-

이란측은 80년 6월 국내 사정으로 지분 50%를 모두 쌍용정유에 넘겨 주고 철수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精油産業의 급신장은 경제성장의 속도와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와 가속화된 고도성장정책과 경제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국내 석유류 소비는 급증세를 보였다. 61년 5백42만 배럴에 불과하던 국내 석유류 총소비량은 지난 19년 동안 무려 34배나 증가하여 연평균 20.5%의 높은 성장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석유류제품별 소비구

란 영향을 끼쳤다. 즉 64년의 경우 전체 1차 에너지수요의 9.8%에 불과하던 석유류소비가 79년에는 64.4%로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源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석유류제품의 안정적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 나라의 석유류소비는 70년대 고도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확대되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需要를 주로 석유로 충당함으로써 총에

너지 수요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 즉 석유의 준도가 71년의 50.7%에서 79년에는 64.4% 로 계속 확대되어 현재 石油소비규모는 하루에 약 50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석유수요의 GNP 탄성치 (75~78년)도 1.15까지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 경제는 GNP 1%의 성장을 위해서 석유소비가 1.15% 증가하는 고도의 석유소비경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더우기에 에너지를 대량 필요로 하는 重化学工業化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어 우리 나라 경제의 석유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해 말에 발표된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석유수요는 강력한 소비 절약과 代替에너지의 적극적 이용에도 불구하고, 80년 하루 51만 배럴에서 86년에는 하루 63만 배럴, 91년에는 하루 73만 배럴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연간 8%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다는 전제에서 석유수요 산출)

이 수요산정은 석유확보난 시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민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대폭 축소(79년 64.4%→91년 41.6%)한 최소한의 필요물량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석유의 확보는 80년대 안정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과제인 것이다.

油公의 설립 이후 오랜 파트너로서, 또한 대주주로서 油公의 경영에 참여해 온 걸프가 油公의 소유 지분 양도 댓가로 9천 3백만 달러에 합의를 봄으로써 지난 해 8월 19일 전면 철수했다. 이에 따라 油公은 경영권 이전과 더불어 순수국민자본기업으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걸프가 과실송금으로 가져 간 돈은 모두 5천 1백65만 1천달러, 투자액 2천 9백69만 7천달러의 1백73%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그리고 油

公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누계가 5천 9백61만 8천 달러로 투자액의 약 2 배를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그러나 걸프가 한국경제에 남긴 공헌도 무시할 수 없다. 걸프는 외국투자자들이 모두 對韓 투자를 망설일 때 과감히 상륙,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를 계기로 외국자본의 韓國러시가 이루어졌다. 60년대 경제개발초기 外資誘致에 기여한 그들의 공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걸프는 그동안 상당량의 原油를 공급하여 국내 석유수급에 많은 기여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현대적 경영기법의 효시였고, 그들에게서 훈련받은 기술인력들은 하나의 「人力풀」을 형성, 후일 정유업계 및 관련석유화학업계의 다원화에 밑거름이 됐다.

물론 걸프의 韓國경제에의 진출과 공헌의 바탕에는 걸프 자체의 경영전략과 이익추구가 최우선적이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그동안 적정이윤 보장 및 이해관계를 둘러 싸고 우리 정부와 여러번 마찰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 여건과 능력을 고려하면, 불가피했던 것이었으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걸프가 회수해 간 이익 이상으로 국내 정유업계도 그 동안 자본축적과 많은 경험 및 기술습득을 이룩하여 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걸프의 韓國진출이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된 하나의 계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걸프의 철수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외국자본 및 기술에 크게 의존해왔던 지난 시대에서 향후의 자립경제로 전환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라지는 청탁풍조
밝아오는 정의사회

精油会社別 油種別 原油導入 推移('72~'80)

(單位: 千bbl)

年度	油種 会社	Kuwait	Arabia				Khafji	Iran	기타	計	備考 (C & F 基準單價)
			L	M	H	計					
'72	油公	42,334	-	1,580	-	1,580	5,542	1,648	720	51,824	221,077千\$ C & F (2.288\$/Bbl)
	湖南	-	19,340	5,789	3,278	28,407	-	970	-	29,377	
	京仁	2,846	-	-	6,880	6,880	-	206	-	9,932	
	極東	1,448	-	-	-	-	-	-	-	1,443	
	計	46,628	19,340	7,369	10,158	36,867	5,542	2,824	720	92,576	
'73	油公	16,644	-	18,005	420	18,425	15,844	1,256	-	52,169	305,185千\$ C & F (2.957\$/Bbl)
	湖南	741	14,482	13,074	9,412	36,968	-	-	-	37,709	
	京仁	529	238	-	7,780	8,018	-	3,298	-	11,845	
	極東	1,487	-	-	-	-	-	-	-	1,487	
	計	19,401	14,720	31,079	17,162	63,411	15,844	4,554	-	103,210	
'74	油公	17,482	-	23,646	483	24,129	16,799	3,077	-	61,487	1,107,822千\$ C & F (9.829\$/Bbl)
	湖南	-	9,279	10,253	16,554	36,086	-	-	-	36,086	
	京仁	-	853	-	12,645	13,498	-	228	-	13,726	
	極東	1,404	-	-	-	-	-	-	-	1,404	
	計	18,886	10,132	33,899	29,682	73,713	16,799	3,305	-	112,703	
'75	油公	52,156	-	-	3,794	3,794	7,921	882	819	65,572	1,328,152千\$ C & F (11.275\$/Bbl)
	湖南	-	10,841	2,088	24,499	37,428	-	-	-	37,428	
	京仁	-	-	-	10,639	10,639	2,273	-	402	13,314	
	極東	1,481	-	-	-	-	-	-	-	1,481	
	計	53,637	10,841	2,088	38,932	51,861	10,194	882	1,221	117,795	
'76	油公	52,406	-	-	4,683	4,683	3,181	14,234	-	74,504	1,580,003千\$ C & F (11.933\$/Bbl)
	湖南	-	3,275	21,833	16,580	41,688	566	-	-	42,254	
	京仁	-	1,410	-	4,859	6,269	7,154	-	868	14,291	
	極東	-	-	-	-	-	-	-	1,358	1,358	
	計	52,406	4,685	21,833	26,122	52,640	10,901	14,234	2,226	132,407	
'77	油公	47,439	-	-	13,888	13,888	-	16,361	1,879	79,567	2,000,075千\$ C & F (12.95\$/Bbl)
	湖南	-	5,833	36,065	12,329	54,327	-	-	-	54,327	
	京仁	2,219	450	-	14,730	15,180	912	-	590	18,901	
	極東	-	-	-	-	-	-	-	1,753	1,753	
	計	49,658	6,383	36,065	40,947	83,395	912	16,361	4,222	154,548	
'78	油公	50,789	-	-	28,275	28,275	-	12,912	-	91,976	2,173,680千\$ C & F (13.06\$/Bbl)
	湖南	-	11,056	38,539	3,419	53,014	-	-	-	53,014	
	京仁	-	3,073	11,479	-	14,552	3,854	-	728	19,134	
	極東	-	-	-	-	-	-	-	2,408	2,408	
	計	50,789	14,129	50,018	31,694	95,841	3,854	12,912	3,136	166,532	
'79	油公	58,013	6,474	1,445	15,584	23,502	-	12,789	2,881	97,185	3,330,608千\$ C & F (17.954\$/Bbl)
	湖南	214	9,825	55,917	582	66,324	-	1,811	-	68,349	
	京仁	1,660	2,252	-	6,787	9,039	847	5,209	-	16,755	
	極東	-	-	-	-	-	-	-	3,223	-	
	計	59,887	18,451	57,362	22,953	98,865	847	19,809	6,104	185,513	
'80	油公	45,011	10,534	4,036	15,074	29,644	4,129	5,663	662	85,109	5,641,434千\$ C & F (30.85\$/Bbl)
	湖南	-	16,786	43,590	11,835	72,211	-	-	-	72,211	
	京仁	390	1,838	950	5,899	8,687	1,693	2,937	1,452	15,159	
	雙龍	-	324	439	550	1,313	-	6,915	-	8,228	
	極東	-	-	-	-	-	-	-	2,153	2,153	
計	45,401	29,482	49,015	33,358	111,855	5,822	15,515	4,267	182,860		